

한국 축구의 미래, 유소년 축구선수에게 꿈과 희망 전달

글 김국환(홍명보장학재단 사무국장)



홍명보장학재단은 지난 2002년 제1회 홍명보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 이래 21년 동안 해마다 미래 축구 꿈나무에게 장학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 우리 국민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붉은색 물결로 뒤덮였고 미디어는 연일 월드컵 소식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으며, TV 앞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국민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는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서 느낄 수 있듯 얼핏 보기에 축구선수의 삶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팬의 사랑과 응원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유소년이 '축구선수'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면과 달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장애물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녀 합해 총 664개 축구팀에서(초등학교 297개 팀, 중학교 210개 팀, 고등학교 157개 팀) 2만 2,000명이 넘는 축구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약 2,000명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축구부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실력이 아주 우수함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2의 손흥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유소년 꿈나무들이 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은 지난 2016년 '홍명보장학재단 SHARE THE DREAM 자선축구' 경기에 후원금을 전달한 이래 201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기부금 총 8,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은 자선 경기 개최 및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청년희망재단, 지역복지관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여러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올 2023년,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과 홍명보장학재단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과 미래 축구 꿈나무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후원금 2,000만 원을 본 재단에 후원해주었습니다. 해당 기금은 실력이 우수함에도 금전적 어려움으로 꿈을 이어가기 어려운 유소년 선수의 장학금 지원과 축구용품 후원 등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어린아이가 멋진 축구선수로 성장해 사무실에 감사의

전화를 걸어온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홍명보 이사장이 임버릇처럼 하는 말은 "축구로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축구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유소년 축구선수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의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본 재단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사업에 공감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프로 보는 1%나눔재단

2023년 2월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